

미용업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우* · 남철현* · 이명선** · 최연희*** · 곽형심****

* 경산대학교 보건학부 · **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교육과 ·

*** 김천과학대학 피부미용과 · **** 동원대학 피부미용과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조사성적 및 고찰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지속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목표로 평생동안 나름대로 전문직종에 종사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정보화라는 큰 흐름 속에 변화하면서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생활 환경속에서 끊임 없이 가중되는 정신적, 신체적, 환경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업무지식과 정보, 과중한 업무량과 함께 고도의 긴장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하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똑같은 일을 온종일 반복해야 하는 지루하고 단순한 업무

도 있다. 더욱이 상사로부터의 질책과 압박감, 자율권이 결여된 지나친 간섭,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소외감, 동료간의 경쟁과 갈등, 과중한 업무 등과 같은 각종의 반목과 불화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미용업 종사자 역시 고객들의 끝없는 서비스의 요구, 새로운 기술습득, 경직되고 무리한 근무조건의 직장환경 등 여러 범주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고도로 발달된 현대 조직사회의 인간 생활은 스트레스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조직내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부작용들은 조직목표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 발휘에 장애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현대인의 질병의 50~77%가 스트레스와 연관된 것이라 했고 특히, 심장병 유발 요인의 75%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이순자, 남철현, 1999).

만성적 스트레스는 생리적으로 자율신경 계통과 내분비 계통에 영향을 끼쳐 정신적, 신체적 균형을 파괴시켜 각종의 질병을 유발시키며, 심해질 경우 신체조절이 약화되어 감기에 자주 걸리며 위궤양,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간경화증, 암 등 많은 질병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우천, 1997).

최근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과 생활의 여유 등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미용분야는 인간생활에 불가결한 요소이며,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송기옥, 1999).

섬세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는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각있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미용이라는 일은 기술과 서비스가 그 기둥이 되고 있다. 실제 미용기술과 서비스는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며 사람이 행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미용산업에 종사하는 미용사와 피부관리사들의 근무조건은 오랜시간 동안 서서 작업을 하며, 고객의 미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Stress)를 받게 됨은 물론, 육체적 어려움과 더불어 건강 위협 요인에 폭로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어 미용사와 피부관리사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일반적인 목적은 미용업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실태 파악과 이에 미치는 제반 원

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가지 구체적인 목적을 들 수 있다.

1) 우리나라 미용산업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2) 업무 및 직장내의 환경과 종사자들의 특성, 가족 환경, 건강행태가 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3) 효율적인 미용업무 수행과 미용 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두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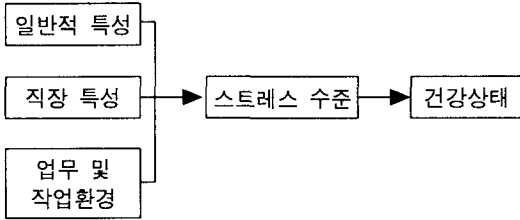
조사대상 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미용실 및 피부관리실 4,500여개소 11,300여명의 종사자와 경상북도 소재 4,950여개소 12,400여명의 종사자 중에서 1,000명의 종사자를 임의 추출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20명의 종사자들에게 배포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수정 보완 후 본 설문지로 확정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훈련된 대학원생 및 대학생 3명이 각 조사지역에 현지 출장하여 영업소 경영자의 협조하에 휴식 시간 중 준비된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에 대한 당위성과 내용을 설명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케 한 후 직접 수거하였다.

3. 분석틀과 분석방법

1) 분석틀



<그림 1> 분석모형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사자의 일반적특성, 직장특성, 건강상태, 업무 및 작업 환경 만족도가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수준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제시된 <그림 1>에서 분석틀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모형(인과모형: Causal Model)을 설정하여 일반적특성, 직장특성, 건강상태, 업무 및 작업 환경 만족도가 스트레스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직장특성이란 미용업이라는 직업만이 갖는 특성으로 직종, 규모, 앞으로의 비전이나 직업선택의 동기, 휴무수 등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 및 작업환경 특성은 근무시간, 신체적 근무형태, 업무작업상태, 업무적성과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미용업이라는 전문직종이 다른직종과 구별이 될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잘못 기재되거나 무응답이 많은 자료는 폐기하고 조사대상자 1,000명중 811명(전체의 81.1%)의 응답지를 SPSS PC Program에 의거 전산처리하여 평

균, 표준편차, 회귀분석을 하였고 유의성 검정은 t-검정, 분산분석으로 하였다.

4.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대한예방의학회(1993)의 건강통계 자료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연구에 소개된 Goldbug의 일반건강조사표(GHQ-60)를 기초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총 1,000부가 배포되어 874부(87.4%)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63부를 제외한 811부를 사용하였다.

5.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스트레스 요인을 물리적, 개인수준, 집단수준, 조직전체 수준으로 분류하여 항목별 신뢰도 검정을 한 결과는 <표 1>와 같이 α 값이 0.6010~0.7049로서 설문지 자료의 신뢰도가 대체적으로 높았다.

<표 1> 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의 신뢰도

요 인	문항수	설문번호	신뢰도(α)
물리적	3	4,14,22,	0.6010
개인수준	10	1,2,3,5,10,15,19,28,29,30	0.6827
집단수준	9	7,8,11,12,17,18,20,21,23	0.7049
조직전체수준	8	6,9,13,16,24,25,26,27	0.7015

Ⅲ. 조사성적 및 고찰

1. 조사대상자 특성

- 일반적 특성별 조사대상자 분포

조사대상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90.8%로

남자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가 28.0%, '20대'가 42.1%, '30대' 17.3%, '40대 이상'이 12.7%였다<표 2>.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23.2%, '미혼자'가 73.7%였으며, 성장지역이 '대도시'인 대상자가 57.5%로 가장 높았고, 종교별로는 '무교'가 41.9%로 가장 높았고, '불교'가 33.2%, '기독교', '천주교'가 15.9%, 9.0%였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자'가 35.1%, '전문대졸 이상'이 63.6%였고 '중학교 이하'는 1.3%였다.

근무년한은 '1년 미만'이 44.6%, '2~5년'이 26.0%, '6~9년'이 15.7%였고. '10년 이상'이 13.7%였다. 월수입은 '49만원 이하'가 33.9%, '100~149만원'이 15.6%였으며 '200만원 이상'은 14.1%였다. 자가판단 경제상태는 '중류층' 64.8%, '하류층' 29.0%이었고, '상류층'이 6.2%였다.

· 직장 및 직무 특성별 조사대상자 분포

조사대상자의 직장 및 직무 특성은 근무처 직종별로 보면, '헤어파트 보조'가 33.8%, '피부관리파트 보조'가 12.3%였으며, '미용실 헤어디자이너'가 21.5%, '피부관리실 피부관리사'가 13.2%, '원장 및 전문경영인'이 19.2%였다<표 3-1>, <표 3-2>.

1일 근무시간은 '8~10시간 근무'가 27.8%, '8시간 미만'이 23.4%였고 '10-12시간 미만'은 28.7%였으며, '12시간 이상'도 20.1%였다. 직장 규모는 '3명 미만' 17.9%, '4-6명'은 41.5%였고, '7-9명'은 14.8%, '10명 이상'이 25.8%였다. 신체적 근무 형태에서는 '서서 하는 작업'이 66.9%로 가장 높았으며, '서서도 하고 앉기도 하는 작업'도 24.5%였다. 업무작업 상태에서는 '손발사용'이 72.7%였으며, '몸통이나 어깨의 힘' 사용이 16.9%였다. 업무적성 만족도는 '보통'이 34.2%,

<표 2> 일반적 특성별 조사대상자 분포

구 분	인원수 811	% 100.0
연령(세)		
≤19	227	28.0
20~29	341	42.1
30~39	140	17.3
40≤	103	12.6
성별		
남	75	9.2
여	736	90.8
결혼상태		
기혼	188	23.3
미혼	598	73.7
기타	25	3.0
종교		
무교	339	41.9
불교	269	33.2
천주교	74	9.0
기독교	129	15.9
학력		
중학교	11	1.3
고등학교	285	35.1
대학교이상	515	63.6
근무년한(년)		
≤1	362	44.6
2~5	211	26.0
6~9	127	15.7
10≤	111	13.7
성장지역		
대도시	466	57.5
중·소도시	188	23.2
읍·면지역	157	19.3
월수입(만원)		
≤49	275	33.9
50~99	226	27.8
100~149	126	15.6
150~199	70	8.6
200≤	114	14.1
경제상태(자가판단)		
상	50	6.2
중	526	64.8
하	235	29.0

‘만족’이 55.8%, ‘불만족’이 34.2%였고, 작업환경 만족도는 ‘보통’이 46.3%, ‘만족’이 40.9%, ‘불만족’이 12.8%였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미래계획에서는 ‘계속 근무하겠다’가 67.9%, ‘몇 년만 더 근무하겠다’는 10.8%였고, ‘언제든지 그만 두겠다’가 18.5%로

<표 3-1> 직장특성별 조사대상자 분포

구 분	인원수 811	% 100.0
근무처직종		
헤어파트 보조	274	33.8
피부관리파트 보조	100	12.3
원장 및 전문경영인	156	19.2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175	21.5
피부관리실 피부관리사	106	13.2
직장규모(본인포함)		
3명 미만	146	17.9
4-6명	336	41.5
7-9명	120	14.8
10명 이상	209	25.8
자신의 직업에 대한 미래계획		
계속 근무하겠다	551	67.9
몇 년만 더 근무하겠다	88	10.8
언제든지 그만 두겠다	150	18.5
결혼과 동시에 그만 두겠다	22	2.8
미용관련자격증(면허) 교육기관		
미용학원	415	51.2
미용기술학교	49	6.1
전문대학	259	31.9
기타	88	10.8
피부미용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		
일 자체	336	41.5
수입	92	11.4
독자적 경영가능성	323	39.8
주위의 권유	60	7.3
월간 정기 휴무수		
1회	61	7.5
2회	151	18.6
3회	180	22.2
4회 이상	419	51.7

<표 3-2> 업무 및 작업환경특성별 조사대상자 분포

구 분	인원수 811	% 100.0
1일 근무시간		
<8	190	23.4
8~10미만	226	27.8
10~12미만	232	28.7
12≤	163	20.1
신체적 근무형태		
서서하는 작업이 많다	543	66.9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다	69	8.6
서서도하고 앉기도 하는 작업	199	24.5
업무 작업상태		
주로 두뇌사용	84	10.4
주로 손발사용	590	72.7
몸통이나 어깨의 힘 사용	137	16.9
업무 적성 만족도		
만족	452	55.8
보통	277	34.2
불만족	82	10.0
작업환경만족도(시설 등)		
만족	332	40.9
보통	375	46.3
불만족	104	12.8

높았으며, ‘결혼과 동시에 그만 두겠다’도 2.8%였다.

미용관련 자격증(면허) 교육기관에서는 ‘미용학원’이 51.2%, ‘미용기술학교’가 6.1%, ‘전문대학’이 31.9%였으며, ‘기타(외국유학)’가 10.8%였다.

피부미용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일 자체’가 41.5%였고, ‘수입때문’이 11.4%, ‘독자적 경영가능성’이 39.8%였으며,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가 7.4%였다. 월간 정기 휴무수는 ‘1회’가 7.5%, ‘2회’, ‘3회’가 각각 18.6%, 22.2%였으며, ‘4회 이상’이 51.7%로 가장 높았다.

· 건강 및 스트레스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대상자 분포

조사대상자의 건강 및 스트레스 관련사항에서는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가 24.6%였고, '보통이다' 57.2%, '건강하지 못하다'는 18.2%였다<표 4>. 질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이유에서는 '스트레스에 의해서'가 67.9%로 가장 높았으며, '영양상태' 때문이 15.7%, '선천적으로 약해서'가 5.2%였다. 지난 6개월간 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횟수에서는 '없다'가 65.1%로 높았으나, '1회', '2회', '3회 이상'이 각각 13.2%, 11.6%, 10.1%로 '스트레스로 인한 결근'이 34.9%였다.

1일 흡연량은 '피우지 않는다'가 80.6%였고, 1일 '6-10개비' 6.6%, '11개비이상'이 6.4%였다. 음주횟수에서는 '안마신다'가 17.4%였고, '월 1회정도 마신다'가 24.0%, '2주 1회'가 23.3%, '1주 1회'가 24.0%였으며, '1주 3-4회'도 11.4%였다.

음주정도는 '취하도록 마신다'가 9.1%, '기본 좋을 정도로 마신다'가 58.4%로 가장 높았으며, '한 두잔 정도'가 32.5%였다.

커피나 청량음료 음용정도에서는 1일 '한 잔'이 29.3%였고, 1일 '두 잔', '세 잔'이 각각 22.5%, 17.1%였으며, 1일 '네 잔 이상'도 7.3%였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실천정도는 '열심히 실천한다'가 42.3%로 가장 높았고, '보통정도'가 28.2%, '실천이 미흡하다'가 13.6%였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교육받은 경험 유무에서는 '있다'가 12.5%였고, '없다'가 87.5%로 월등히 높아 스트레스에 대한 지식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매체로부터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습득 유무는 '신문'에서 13.5%였고, '라디오'에서 8.9%였으며, '정기간행 잡지'등에서 6.9%이며, '없음'이 34.8%로 가장 높았다.

<표 4> 건강 및 스트레스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대상자 분포

구 분	인원수 811	% 100.0
현재 건강상태(자가판단)		
건강하다	200	24.6
보통이다	463	57.2
건강하지 않다	148	18.2
몸이아파 병·의원 방문 유무 (지난 3개월간)		
있다	321	39.6
없다	490	60.4
질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이유		
스트레스에 의해	550	67.9
재수가 나빠서	28	3.4
영양상태	127	15.7
주위환경이 깨끗하지 못해서	27	3.3
선천적으로 약해서	42	5.2
기 타	37	4.5
스트레스에 의한 결근횟수 (지난 6개월간)		
없다	528	65.1
1회	107	13.2
2회	94	11.6
3회	32	3.9
3회 이상	50	6.2
1일 흡연량		
피우지 않음	654	80.6
5개비 미만	52	6.4
6-10개비	53	6.6
11개비 이상	52	6.4
음주횟수		
안 마신다	141	17.3
월 1회	194	24.0
2주 1회	189	23.3
1주 1회	194	24.0
1주 3-4회	93	11.4
음주정도		
취하도록 마심	74	9.1
기본 좋을 정도로마심	473	58.4
한 두잔정도	264	32.5
커피, 청량음료 음용정도		
거의 마시지 않음	194	23.8
1일 한잔	237	29.3
1일 두잔	182	22.5
1일 세잔	139	17.1
1일 네잔 이상	59	7.3

(계 속)

구 분	인원수 811	% 100.0
스트레스 해소를위한 실천정도		
스트레스가 없음	128	15.9
열심히 실천	343	42.3
보통정도	228	28.2
실천이 미흡	112	13.6
직장에서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교육받은 경험 유무		
있다	102	12.5
없다	709	87.5
매체로부터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습득 유무		
없음	282	34.8
TV	15	1.9
라디오	72	8.9
신문	110	13.5
정기간행 잡지	56	6.9
기타	276	34.0

2.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직무적 스트레스 요인별 스트레스 수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직무적 스트레스 요인별 스트레스 수준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물리적 요인은 15점 만점으로 '30대'에서 8.84 ± 2.29 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5$),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9.34 ± 2.38 로 여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p < 0.001$). 이는 아직까지 미용산업 분야가 여성 중심분야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은 추세여서 남자들의 직무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생각된다<표 5>.

결혼상태와 근무연한 별로는 유의성이 없었으며, 월수입별로 보면, '200만원 이상'이 8.05 ± 2.33 으로 수입이 높지만, 직무적 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고 있었으며, '49만원 이하'에서도 8.29 ± 2.21 로 수입이 너무 낮아도 직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p < 0.05$). 이는 산업장 근로자

의 경우 수입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 보고한 이(2000)의 발표와 본 연구 조사가 유사하였다.

자가판단 경제상태별 차이는 상류층이 8.87 ± 2.75 로 스트레스 수준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였다($p < 0.001$).

개인요인의 경우, 50점 만점으로 성별에서 '남자'가 37.24 ± 5.22 로 '여자'의 34.69 ± 5.40 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연령별, 결혼상태별, 종교별, 학력별, 근무연한에서는 유의성이 없었으며, 성장지역별에서 '읍·면 지역'이 35.39 ± 6.07 로 타군보다 조금 높았다($p < 0.01$). 자가판단 경제상태는 '중류층'에서 35.42 ± 5.51 로 가장 높았다($p < 0.01$).

집단요인의 경우는 45점 만점으로 결혼상태별에서 '기혼'이 30.31 ± 4.91 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다($p < 0.01$). 학력별에서는 '고졸'에서 30.54 ± 5.49 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대학교이상의 학력자보다 학력차이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p < 0.05$). 근무연한에서는 '1년 미만'이 30.40 ± 5.49 로 근무연한이 작을수록 직무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p < 0.01$). 경제상태는 '중류층'에서 30.37 ± 5.32 로 타군보다 다소 높았다($p < 0.001$).

조직전체의 경우는 40점 만점으로 큰 유의성은 없었으나, 월수입별에서 '150~199만원'이 26.59 ± 4.95 로 가장 높았다($p < 0.001$). 이는 수입의 크기로 봐서 가장 직무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장지역별에서는 '중·소도시'가 23.91 ± 4.19 로 타군보다 높았으며($p < 0.001$), 경제상태도 '중류층'이 가장 높았다($p < 0.001$).

<표 5>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직무적 스트레스 요인별 스트레스 수준

구 분	N	물리적 요인	개인요인	집단요인	조직전체요인
		M±SD	M±SD	M±SD	M±SD
	811	8.39±2.23	34.92±5.43	29.83±5.39	24.21±4.90
	만점	15	50	45	40
연령(세)					
≤19	227	8.31±2.01	34.97±5.51	29.88±5.45	23.88±4.80
20~29	341	8.40±2.34	34.92±5.60	29.85±5.58	24.30±5.06
30~39	140	8.84±2.29	34.90±5.06	30.31±5.45	24.19±4.67
40≤	103	7.97±2.16	34.86±5.25	29.04±4.41	24.65±4.90
		F=3.27*	F=0.01	F=1.11	F=0.64
성별					
남	75	9.34±2.38	37.24±5.22	32.16±6.25	25.31±5.38
여	736	8.30±2.20	34.69±5.40	29.60±5.24	24.09±4.84
		t=3.87***	t=3.90***	t=3.94**	t=2.05*
결혼상태					
기혼	188	8.41±2.20	35.24±5.12	30.31±4.91	24.90±4.75
미혼	598	8.39±2.23	34.88±5.52	29.82±5.51	24.01±4.94
기타	25	8.31±2.55	33.60±5.69	26.59±4.88	23.54±4.74
		F=0.02	F=1.09	F=5.28**	F=2.61
종교					
무교	339	8.60±2.35	34.65±5.41	29.89±5.55	24.06±4.77
불교	269	8.47±2.10	35.09±5.23	29.96±5.15	24.49±4.93
천주교	74	8.18±2.06	35.23±6.28	30.03±4.17	24.93±5.31
기독교	129	7.81±2.19	35.10±5.43	29.31±5.83	23.58±4.89
		F=4.33**	F=0.49	F=0.50	F=1.66
학력					
중학교	11	9.08±1.64	33.51±6.15	29.65±5.76	24.34±3.31
고등학교	285	8.70±2.44	35.11±5.43	30.54±5.49	24.66±5.09
대학교 이상	515	8.21±2.10	34.85±5.42	29.45±5.30	2.95±4.81
		F=4.97**	F=0.58	F=3.81*	F=1.93
근무연한(년)					
≤1	362	8.41±2.26	35.12±5.40	30.40±5.49	24.28±4.91
2~5	211	8.31±2.16	34.64±5.81	29.07±5.23	23.90±4.66
6~9	127	8.50±2.37	34.88±4.85	30.32±5.67	24.43±5.31
10≤	111	8.39±2.11	34.86±5.49	28.89±4.73	24.27±4.85
		F=0.20	F=0.36	F=4.26**	F=0.40
성장 지역					
대도시	466	8.47±2.28	35.20±5.38	30.21±5.45	24.25±4.85
중·소도시	188	7.83±2.02	33.84±4.85	28.90±4.78	23.91±4.19
읍·면지역	157	8.86±2.21	35.39±6.07	29.84±5.77	25.27±5.58
		F=9.88***	F=4.95**	F=3.94*	F=7.73***
월수입(만원)					
≤49	275	8.29±2.21	34.98±5.35	29.96±5.27	23.09±4.63
50~99	226	8.46±2.30	34.55±5.49	29.61±5.36	24.46±4.93
100~149	126	8.40±2.01	34.80±5.53	29.54±5.98	23.48±5.00
150~199	70	9.12±2.15	35.52±4.79	30.64±5.29	26.59±4.95
200≤	114	8.05±2.33	35.30±5.79	29.79±5.14	23.79±4.96
		F=2.75*	F=0.64	F=0.64	F=5.54***
경제상태(자가판단)					
상	50	8.87±2.75	33.70±5.84	28.72±5.57	22.63±5.30
중	526	8.56±2.20	35.42±5.51	30.37±5.32	24.78±4.93
하	235	7.93±2.12	34.07±5.03	28.88±5.36	23.26±4.53
		F=7.86***	F=6.46**	F=7.40***	F=10.76***

* p<0.05, ** p<0.01, *** p<0.001

3. 직장특성에 대한 직무적 스트레스 요인별 스트레스 수준

직장특성에 대한 직무적 스트레스 요인별 스트레스 수준은 물리적 요인의 경우 15점 만점으로, 일일 근무시간에서는 '10~12시간'이 8.70 ± 2.23 으로 가장 높았고($p < 0.01$), 근무형태에서 '서서 또는 앉아서 하는 작업'이 8.80 ± 2.17 로 타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표 6>.

개인요인에서는 50점 만점으로 근무처 직종에서 '미용실 헤어디자이너'가 35.76 ± 5.59 으로 타군보다 직무적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고($p < 0.01$), 직장규모에서 '10명 이상'이 35.59 ± 5.28 으로 가장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병원종사자 직종의 경우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스트레스가 높은것으로 조사 보고한 이(1997)의 발표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근무직종에 따른 직무적 스트레스 수준은 본 조사와 유사하였다.

업무 작업 형태에서는 '손발사용'이 35.15 ± 5.37 으로 유의성은 없었으나, 타군보다 높았고, 작업환경 만족도에서 '보통'이 35.35 ± 5.25 으로 가장 높았다($p < 0.001$).

집단요인의 경우 45점 만점으로, 일일 근무시간에서 '10~12시간'이 30.49 ± 5.69 으로 타군보다 가장 직무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p < 0.01$). 직장규모에서 '10명 이상'이 30.16 ± 5.51 으로 유의성은 없었으나, 타군보다 높았다. 업무적성 만족도에서 '만족'이 30.39 ± 5.43 으로 가장 높았지만, 직무적 스트레스 수준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p < 0.001$).

조직전체 요인의 경우는 40점만점으로, 근무처 직종에서 '원장 및 전문경영인'이 24.41 ± 5.02 으로 유의성은 없었으나, 타군보다 직무적 스트

레스 수준은 높았다. 일일 근무시간에서는 '10~12시간'이 24.81 ± 4.93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p < 0.01$), 작업환경 만족도에서는 '만족'이 24.62 ± 5.10 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무적 스트레스 수준도 유의성이 높았다($p < 0.001$).

4. 스트레스 및 건강관련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수준

스트레스 및 건강관련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물리적 요인은 15점 만점으로 건강상태에서, '건강하다'가 9.21 ± 2.34 으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표 7>. 물리적 요인으로는 조명, 소음, 진동, 온도 공해 등을 들 수 있다.

3개월간 병·의원방문에서는 '있다'가 8.65 ± 2.18 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01$), 스트레스에 의한 결근에서 보면, '없다'가 8.54 ± 2.21 , '1회'가 8.29 ± 2.21 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1일 흡연량은 '6~10개비'가 8.73 ± 2.38 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음주정도에서는 '기본 좋을 정도 마신다'가 8.49 ± 2.21 로 높게 나왔으며, 유의성도 있었다($p < 0.05$). 스트레스 해소 노력정도에서는 '열심히 실천한다'가 52 ± 2.43 으로 가장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개인적 요인은 50점 만점으로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다'가 36.08 ± 5.71 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성도 있었다($p < 0.01$). 음주정도에서는 '기본 좋을 정도 마신다'가 35.41 ± 5.28 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스트레스 해소 노력정도에서는 '스트레스가 없다'가 36.83 ± 5.85 로 가장 높았고, 유의성도 있었다($p < 0.001$). 스트레스 정보습득 매체에서는 'TV에서'가 37.28 ± 4.85 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표 6> 직장특성에 대한 직무적 스트레스 요인별 스트레스 수준

구 분	N	물리적 요인	개인요인	집단요인	조직전체요인
		M±SD	M±SD	M±SD	M±SD
	811	8.39±2.23	34.92±5.43	29.83±5.39	24.21±4.90
	만점	15	50	45	40
근무처직종					
헤어 파트보조	274	8.15±2.22	35.05±5.32	29.75±5.06	23.97±4.62
피부관리 파트보조	100	8.47±2.03	33.51±5.86	29.04±5.66	24.34±4.82
원장 및 전문경영인	156	8.36±2.29	35.10±5.40	29.60±5.05	24.41±5.02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175	8.69±2.39	35.76±5.59	30.57±6.19	24.12±5.29
피부관리실 피부관리사	106	8.48±2.00	34.08±4.78	29.84±5.01	24.35±4.83
		F=1.66	F=3.23**	F=1.29	F=1.09
일일근무시간					
<8	190	8.70±2.25	34.85±5.13	30.48±5.36	24.74±4.79
8~10미만	226	8.08±2.18	34.63±5.45	28.90±5.28	23.82±4.99
10~12미만	232	8.70±2.23	35.55±5.56	30.49±5.68	24.81±4.93
12≤	163	8.04±2.19	34.51±5.54	29.44±4.95	23.27±4.69
		F=5.46**	F=1.60	F=4.67**	F=4.43**
직장규모(명)					
<3	146	8.17±2.07	35.21±5.52	29.90±5.17	24.45±4.95
4~6	336	8.53±2.24	34.23±5.45	29.77±5.36	24.24±4.79
7~9	120	8.63±2.22	35.33±5.39	29.36±5.54	23.87±5.20
10<	209	8.19±2.32	35.59±5.28	30.16±5.51	24.18±4.90
		F=1.98	F=3.27*	F=0.60	F=0.31
근무형태					
주로서서작업	543	8.21±2.26	34.98±5.49	29.70±5.48	23.97±4.94
주로앉아서작업	69	8.66±1.98	34.48±5.08	30.51±5.03	24.66±4.36
서서또는앉아서작업	199	8.80±2.17	34.93±5.41	29.96±5.26	24.69±4.95
		F=5.77**	F=0.26	F=0.77	F=1.87
업무작업형태					
두뇌사용	84	8.61±2.37	34.84±5.28	30.10±5.64	24.34±5.50
손발사용	590	8.41±2.16	35.15±5.37	29.85±5.36	24.09±4.79
몸통이나어깨힘사용	137	8.20±2.44	34.01±5.72	29.61±5.39	24.61±5.01
		F=0.88	F=2.46	F=0.21	F=0.65
업무적성만족도					
만족	452	8.64±2.19	35.78±5.29	30.39±5.43	24.75±4.84
보통	277	8.35±2.19	34.60±5.15	29.85±5.27	24.06±4.80
불만	82	7.20±2.19	31.24±5.59	26.70±4.44	21.68±4.81
		F=15.00***	F=26.41***	F=16.75***	F=14.10***
작업환경만족도					
만족	332	8.62±2.35	35.22±5.30	30.32±5.70	24.62±5.10
보통	375	8.43±2.10	35.35±5.25	29.80±5.11	24.33±4.66
불만	104	7.56±2.13	32.42±5.87	28.43±5.12	22.45±4.74
		F=9.10***	F=13.09***	F=4.95**	F=8.11***

* p<0.05, ** p<0.01, *** p<0.001

<표 7> 스트레스 및 건강관련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수준

구 분	N	물리적 요인	개인요인	집단요인	조직체재요인
		M±SD 8.39±2.23 15	M±SD 34.92±5.43 50	M±SD 29.83±5.39 45	M±SD 24.21±4.90 40
건강상태					
건강하다	200	9.21±2.34	36.08±5.71	31.31±6.10	25.63±5.17
보통이다	463	8.33±2.14	34.54±5.34	29.44±5.09	23.94±4.62
건강하지않다	148	7.49±1.97	34.55±5.13	29.09±4.92	23.11±4.98
		F=27.22	F=6.09**	F=10.36***	F=13.10***
3개월간 병의원방문					
있다	321	8.00±2.25	34.46±5.23	29.23±5.14	23.82±5.04
없다	490	8.65±2.18	35.23±5.54	30.23±5.15	24.46±4.79
		t=-4.08***	t=-1.98*	t=-2.61**	t=-1.82
스트레스에의한결근					
없다	528	8.54±2.21	35.58±5.38	30.49±5.22	24.82±4.71
1회	107	8.29±2.21	33.59±4.84	28.28±5.46	23.51±5.41
2회	94	8.26±2.18	34.11±4.91	29.39±5.06	23.07±4.67
3회	32	7.68±2.35	33.34±6.48	27.90±6.60	22.06±4.45
4회 이상	50	7.79±2.38	33.40±6.30	28.37±5.62	22.73±5.29
		F=2.47*	F=5.84***	F=6.42***	F=6.71***
1일흡연량					
피우지 않음	654	8.37±2.20	35.04±5.42	29.95±5.41	24.37±4.93
5개비 미만	52	8.57±2.27	33.90±5.25	29.54±4.97	23.88±5.14
6~10개비	53	8.73±2.38	35.10±5.82	30.28±5.42	23.96±4.62
11개비 이상	52	8.11±2.48	34.23±5.43	28.23±5.38	22.75±4.44
		F=0.80	F=1.02	F=1.81	F=1.88
음주정도					
취하도록 마심	74	7.86±2.08	31.98±5.34	27.42±4.26	22.14±4.34
기본좋은정도마심	473	8.49±2.21	35.41±5.28	30.18±5.36	24.33±4.85
절제해서한두잔마심	264	8.20±2.34	34.21±5.34	29.47±5.69	24.37±4.96
		F=3.06*	F=14.73***	F=8.82***	F=6.89**
스트레스해소노력정도					
스트레스 없음	128	7.85±2.78	36.83±5.85	31.07±7.29	23.99±6.34
열심히 실천	343	9.52±2.43	36.03±5.46	30.53±5.89	25.52±5.02
보통정도	228	8.54±2.05	35.71±5.27	30.28±5.41	24.79±4.91
실천 미흡	112	7.90±2.12	33.75±5.41	29.10±4.65	22.91±4.48
		F=15.53***	F=11.01***	F=3.71**	F=8.37***
직장의스트레스해소교육여부					
있다	102	9.63±2.60	36.67±5.36	30.82±5.67	26.13±4.18
없다	709	8.22±2.12	34.67±5.40	29.69±5.34	23.93±4.85
		t=6.09***	t=3.53***	t=1.97*	t=4.29***
스트레스정보습득매체					
없음	282	8.33±2.21	34.53±5.07	29.72±5.38	24.22±4.91
TV	15	8.78±1.53	37.28±4.85	29.37±3.47	25.34±3.27
라디오	72	7.94±1.95	35.63±6.32	28.53±5.14	23.13±5.05
신문	110	8.22±2.41	34.18±5.61	29.30±5.45	23.18±4.92
정기간행잡지	56	9.26±2.39	36.09±4.30	32.75±4.75	25.72±3.92
기타	276	8.23±2.18	33.74±5.14	29.35±5.45	24.18±3.25
		F=3.20*	F=2.65*	F=5.75***	F=3.62**

* p<0.05, ** p<0.01, *** p<0.001

집단요인은 45점 만점으로 건강상태에서 '건강하다'가 31.31±6.10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성도 있었다(p<0.001). 1일 흡연량에서는 '6~10개비'가 30.28±5.42로 유의성은 없었으나 가장 높았다. 집단요인으로는 집단 응집성의 부족, 불충분한 집단후원, 집단내 집단간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조직전체 요인은 40점만점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결론에서 '없다'가 24.82±4.71로 가장 높았

고, 유의성도 있었다(p<0.001). 음주정도에서는 '절제해서 한두잔 마신다'가 24.37±4.96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1). 조직전체 요인으로는 조직구조, 조직영역, 조직업무 특성, 리더쉽 등을 들 수 있다.

5.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조직전체 수준에 미치는 요인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조직전체 수준에 미치

<표 8>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조직전체 수준에 미치는 요인(다중회귀분석)

변수	b	SE B	Beta	Sig T
음주	-.0610	.1507	-.0146	.6857
경제상태	.2846	.3340	.0318	.3944
학력	-.2413	.0902	-.0989	.0076
종교	-.3448	.3422	-.0347	.3140
직장규모	-.0309	.0698	-.0162	.6584
건강상태	.6790	.2794	.0903	.0153
스트레스에 의한 결론(최근 6개월)	-.5473	.1481	-.1326	.0002
성별	1.2392	.6262	.0733	.0482
적성 만족도	.9025	.2110	.1746	.0000
월간 정기 휴무수	.1101	.1848	.0222	.5515
흡연량	-.0798	.0441	-.0686	.0711
근무시간	-.3490	.1213	-.1081	.0041
나이	-.0041	.0341	-.0073	.9039
작업환경 만족도	.2545	.2313	.0450	.2715
결혼 상태	.3921	.5609	.0338	.4848
근무연한	-.0356	.0506	-.0395	.4819
(Constant)	25.8006	2.3564		.0000
R ²		.1103		
F		6.1508		
Significance		0.0000		

비 고 : 음주=>안마심=0, 1개월에1회=0.25, 2주1회=0.5, 1주1회=1, 1주3-4회=4
 경제상태=>상=3, 중=2, 하=1
 학력=>무학=0, 초졸=6, 중졸=9, 고졸=12, 대졸이상=16
 종교=>무교=1, 불교, 천주교, 기독교, 기타=0
 직장규모=>3명미만=3, 4-6명=5, 7-9명=8, 10명이상=10
 건강상태=>건강=3, 보통=2, 불건강=1
 스트레스에 의한 결론=>스트레스=0, 재수=1, 영양=2, 환경=3, 선천적=4
 성별=>남자=1, 여자=0
 적성만족도=>매우=5, 약간=4, 보통=3, 불만=2, 매우 불만=1
 휴무수=>1회=0, 2회=1, 3회=2, 4회이상=3
 흡연량=>안피움=0, 5개미만=5, 6-10=7, 11-한갑=15, 한갑이상=20
 근무시간=>8시간미만=8, 8-10=9, 10-12=11, 12-14=12
 나이=>19세미만=20, 20-29=25, 30-39=35, 40-49=45, 50-59=55, 60세이상=60
 작업환경만족도=>매우=5, 약간=4, 보통=3, 불만=2, 매우 불만=1
 결혼상태=>결혼=1, 미혼, 이혼, 별거, 사별=0
 근무연한=>1년미만=1, 2-3=2.5, 4-5=4.5, 6-7=6.5, 8-9=8.5, 10-19=15, 20년이상=20

는 요인을 회귀분석 한 결과는 <표 8>와 같다. 종속변수 스트레스 조직전체 수준(Y)에 대한 독립변수(x_i)의관계는 $Y=25.801-0.015(\text{음주})+0.032(\text{경제상태})-0.099(\text{학력})-0.035(\text{종교})-0.016(\text{직장규모})+0.090(\text{건강상태})-0.132(\text{스트레스에의한결근})+0.073(\text{성별})+0.175(\text{적성만족도})+0.022(\text{월간정기휴무수})-0.069(\text{흡연량})-0.108(\text{근무시간})-0.07(\text{나이})+0.045(\text{작업환경만족도})+0.034(\text{결혼상태})-0.040(\text{근무연한})이었다.$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조직전체 수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각 독립변수별로 볼 때 업무적성 만족도($\beta=0.1746$)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스트레스에 의한 결근($\beta=-0.1326$)이 다음이었으며, 근무시간($\beta=-0.1080$), 학력($\beta=-0.0989$), 건강상태($\beta=0.090$), 성별($\beta=0.0733$) 순이었다. 이들 변수 중 업무적성 만족도, 스트레스에 의한 결근, 근무시간, 학력, 건강상태, 성별 등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본 회귀분석에서 변수들의 설명력(R^2)은 11%였다.

IV. 요약 및 결론

2001년 4월 10일 부터 7월 10일까지 3개월간 대구·경북에 소재한 미용업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미용업 종사자 811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과 결론을 얻었다.

1. 요약

일반적 특성별 조사대상자는 ‘여자’가 90.8%, ‘20대’가 42.1%, ‘미혼자’가 73.7%, 성장지역이 ‘대도시인 대상자’가 57.5%, ‘무교’가 41.9%, ‘전

문대졸자’가 63.6%, 근무연한은 ‘1년 미만’이 44.6%, 월수입은 ‘49만원 이하’가 33.9%, ‘중류층’이 64.8%였다.

직장 및 직무특성별 조사대상자는 ‘헤어파트 보조’가 33.8%, 1일 근무시간이 ‘10~12시간’이 28.7%, 직장규모는 ‘4-6명’이 41.5%, ‘서서 하는 작업’이 66.9%, ‘손발사용’이 72.8%, 업무적성 만족도는 ‘만족’이 55.8%, ‘불만족’이 34.2%였으며, 작업환경 만족도는 ‘보통’이 46.3%, ‘불만족’이 12.8%였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미래계획은 ‘계속 근무하겠다’가 67.9%, 미용관련 자격증교육기관은 ‘미용학원’이 51.1%, ‘전문대학’이 31.9%였으며, 피부미용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서 ‘일자제’가 41.5%, ‘독자적 경영가능성’이 39.8%였다. 월간 정기 휴무수는 ‘4회 이상’이 51.7%였다.

건강 및 스트레스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대상자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57.2%,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스트레스에 의해서’가 67.9%, 1일 흡연량은 ‘피우지 않는다’가 80.6%, 음주정도는 ‘기분 좋을 정도로 마신다’가 58.4%였으며, 커피나 청량음료 음용정도는 ‘1일 한잔’이 29.3%,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한 실천정도는 ‘열심히 실천한다’ 42.3%, 매체로부터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습득 유무는 ‘없음’이 34.8%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직무적 스트레스 요인별 스트레스 수준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물리적요인은 ‘남자’가 9.34 ± 2.38 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요인은 성장지역이 ‘읍·면지역’에서 경제상태는 ‘중류층’에서 높았다. 집단요인은 ‘기혼’과 ‘고졸’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조직전체의 경우는 월수입에서 가장 높았는데, 수입의 크기가 직무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스트레스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조직전체 수준에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은 업무적

성 만족도, 근무시간, 학력, 건강상태, 성별순이었다.

2. 결론

진정한 아름다움은 최고의 건강에서 표현된다고 할 때,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해서는 미용현장에서 종사자의 개인 및 집단요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한 스트레스의 물리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경영주는 영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업무적성 만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술적인 수준과 근무무언한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의 지급과 근무시간 조절 등의 개선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종사자들 또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신적인 건강유지와 조절 등의 자기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영우, 남철현. 산업근로자의 건강증진행태에 관한 관련 요인 분석,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7;14(2).

권상철.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김광일, 원효택. 간이 정신진단 검사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I, 신경정신 의학 1978;7: 449-458.

김남현. 미용사와 피부관리사의 직업만족도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9.

김동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실증적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1987.

김문석.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모형 설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김일순 외. 건강통계 자료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연구, 대한예방의학회, 1993;121-159.

김재환, 김광일. 간이 정신진단 검사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III, 정신건강연구소 1984; 2: 278-311

박미영.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소영진. 미용사의 직업성 스트레스,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1998.

송기욱. 서비스 조직에 있어서의 내부마케팅 전략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오애자. 미용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관,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2001.

원효택. 간이 정신진단 검사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II, 한양대학교 논문집, 1978;15: 457-474.

이동호.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1998.

이소우. 한국인의 스트레스 반응 양상, 간호학회지, 1992;22(2).

이순자, 남철현. 산업장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방안에 대한 관련 요인, 경산대학교 대학원, 1999.

이우천. 병원종사자의 직업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이종목. 조직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요인 및 그 조정 변인에 관한 소고, 행동과학연구, 제7권, 고대행동과학 연구소, 1985;231-247.

이종목.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결과 및 대책. 성원사, 1989.

이한검. 인간행동론, 무역경영사, 1994; 857-920.

정승언.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역할 - 내의 통제 성향과의 결합 효과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정태경.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응반응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2.

조재호. 기업조직내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

- 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1995.
- 조판래. 미용업 종사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1990.
- 채서일. 마케팅 조사론, 학연사, 1995.
- 최미묘.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서의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 최연희, 남철현. 미용실 종사자들의 두발처치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요인 분석,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1999.
- 하두남.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문제행동 및 성격문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 Brown G. W., and Birley J. L. T.,: Crisis and Life Changes and the Onset of Schizophrenia, *J. of Health. Soc Behav*, Vol. 9, 1968; 203-214.
- Cannon, W., Organization For Physiological Homeostasis. *Psychological Review*, 1929; 9: 339-430.
- Eulberg, J. 등 Models Of Stress, In *Organizational Research*, 4th, No.4, 1988.
- Gibson, J., et al., *Organization*, Irwin, 2th., 1991; 223.
- Harrison, R., Person-Environment Fit and Job Stress. In Cooper, C and Payne, R.,(ed), *Stress At Work*,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8; 175-205.
- Hobfoll S. E. Conservation of resources :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 Psychol*, 1988; 44: 513-524.
- Holt, R., Occupational Stress, in Goldberger, L., and Brenitz, S.,(ed), *Handb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sts*, The Free Press, 1982; 419-444.
- House J. S., Wells J. A., Landerman L. R., McMichael A. J., Kaplan B. H.,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among factory Workers, *J Health Soc Behav*, 1976; 139-160.
- Ivancevich, J., and Matterson, M., *Organizational Behavior and Management*, Irwin, 3rd. 1993;244.
- Lazarus, R. S. and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 Matthews K. A., et al., Stressful Work Collar Factory Worhers, *Am J Epidemiol*, 1997; 126: 280-290.
- Parker, D., and Decotiis, T.,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Job Stress. Org-Beh-Hum-Perfor*, 1983; 32: 160-177.
- Parloff, M. B., Kelman, H. C., Frank J. D., Comfort, Effectiveness and self-awareness as criteria of improvement in Psychotherapy. *Am J Psychiat*, 1954; 111: 343-351.
- Randall, S., *Organizational Stress and Coping: A Model and Overview*, In Amarjit-S and Randall-S(ed). *Hand Book Of Organization Stress Coping Strategies*, Ballinger Publishing Co., 1984; 35-67.
- Schuler, R., *Definition and Conceptualization Of Stress In Organizations*, Management, Prantice-Hall, 4th, 1994; 396.
- Selye, H., *The Stree of Life*. 2th(ed), NY. Mcgraw-Hill, Inc, 1976.
- Szilagyi, A., and Wallace, M.,: *Organizational Behavior and Performance*, Harper Collins, 5th, 1990; .219.
- WHO Reginal Office for European Working Group on Concepts and Principles of Health Promotion, Copenhagen, 1985; 2.

<ABSTRACT>

Stress Level of Workers in Beauty Shops

Sung-Woo Kim* · Chul-Hyun Nam* · Myung-Sun Lee**

Yeon-Hee Choi*** · Hyung-Sim Kwak****

* Faculty of Health Science, Kyungsan University

** 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Department of Division Beauty Art, Kimcheon Science College

**** Department of Hairdressing and Aesthetics, Tongwon Colleg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o causes and symptoms of stress and factors influencing stress management of workers in beauty shops. 811 people who were working in the shops located in Daegu City and Kyungbuk Province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0, 2000 to July 10, 200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female was 90.8%. 42.1% of them was in their twenties and 73.7% of them did not marry. 57.5% of the respondents grew up in big cities and 41.9% had no religion. 63.6% was graduated from junior colleges. 44.6% of them worked for below 1 year and 33.9% earned below four hundred and ninety thousand won per month. 55.8% of them was satisfied with their work aptitude, while 34.2% was not satisfied with it. In the case of satisfaction level with working environment, 'common level' was 46.3%, while 12.8% of them was unsatisfied with it.

In the case of stress level by factors of stress related to working, male was higher (9.34 ± 2.38 points). Those who grew up in towns or villages and those who belonged to the middle class showed high stress level. Those who married and those who graduated from high school also displayed high stress level. It also appeared that monthly income influenced the stress level related to working.

The extent of stress level influencing physical causes appeared in order of health condition, education level, sex, satisfaction level with work aptitude, economic status, and working hours. The extent of stress level influencing whole organizational level appeared in order of satisfaction level with work aptitude, working hours, education level, health condition, and sex. The extent of stress factors influencing depressed feeling of stress symptom appeared in order of working hours, sex, amount of smoking, absence due to stress, age, health condition, and education level.

The extent of influencing factors on active stress management appeared in order of satisfaction level with work aptitude, health condition, size of the shop, drinking, sex, and the number of day off. The extent of influencing factors on avoidable stress management appeared in order of age, absence due to stress, drinking, health condition, and sex.

Key words : stress level, workers beauty shops